

與, 국회 본회의의 ‘선거법 先상정’ 준비

‘250:50·연동률 40%’ 잠정안 부상...9일 유력

‘살라미 전술’ 두고 ‘지나친 꼼수’ 지적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었다.

우선 민주당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선거법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률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연동률도 10%포인트 축소할 안이다.

이 잠정안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잠정안은 정의당 등 ‘4+1’ 단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의 날짜는 정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일각에서는 6일도 거론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정국회회에서 법안 일괄상정 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두고 ‘지나친 꼼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다른 방안까지 열어

두고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전술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디까지든 ‘살라미’라 부를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전략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나서자고 하는 분도 많이 있다. 정국회와 임시국회를 열어 현재 부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고 순서와 과정은 유동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루보다는 더 긴 기간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규탄하는 야3당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완수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

與 “필리버스터 철회” 최후통첩에 한국당 결사저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

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

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 “백원유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릭

서삼석 “말로만 농민 위하는 한국당의 민낯”

농어민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무더기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의해 본회의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사진)이 3일 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발목 잡은 본회의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돼 있고, 이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본회의의 안건에는 ▲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도시 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정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 ▲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한국당의 행태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상자가당측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손금주, 내일 ‘나주·화순여행’ 북 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 (나주·화순·사진)은 오는 5일 오후 2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손금주와 함께 가는 나주·화순 여행’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손금주와 함께 가는 나주·화순 여행’은 손 의원이 직접 나주와 화순 지역 여행지 목록을 선정하고 돌아보며 숨은 여행지, 맛집, 출사지 등을 소개한 여행 에세이로 나주와 화순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다룬 책이다.

손 의원은 “나주와 화순이 정말 큰



잠재력과 미래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관련 여행에세이나 서적이 전무해 책을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나주와 화순을 접하고, 여행하며 큰 감동과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길, 많은 분들께 나주와 화순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윤영덕 “젊은 정치로 정치혁신 일으키겠다”

광주 동남갑 공식 출마선언

윤영덕(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갑 지역구에 공식 출마 선언했다.

윤 전 행정관은 “세상을 잇는 젊은 정치로 동남갑에 정치혁신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며 “촛불 정신을 잇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세대를 잇고, 중앙정치와 광주 경제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전 행정관은 “광주가 키우고 대통령이 검증한 준비된 지역 일꾼”이라며 “지난 날의 광주,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함께 한 제가 대한민국과 광주의 내일을 위한 가슴 뛰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전 행정관은 정책 공약으로 ▲수



소산업 클러스터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혁신 산업도시’ ▲가족행복 수당제 등을 도입하는 ‘사람중심 성장도시’ ▲중소기업 창업 청년복지지원금 제 등을 마련하는 ‘포용적 성장도시’ ▲마을만들기기본법 제정 등의 ‘주민중심 참여도시’ ▲청소년 행복시작 마일리지제 도입 등의 ‘역동적 청년문화도시’ 등 다섯 빛깔 미래광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오색 찬연, 광주’ 공약을 제시했다.

윤 전 행정관은 최근 ‘세상을 잇다’라는 제목의 정치칼럼집을 출간하고 오는 8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다이지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2020학년도 전액무료 훈련

1월 중 개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제품디자인(3D 프린팅)
스마트자동화제어	전기공사(내선공사)
금속재료용접(특수용접)	한식·양식·중식·일식
자동차부품조립 및 관리	제과·제빵·바리스타 / 네일·메이컵·피부

타일+조적·미장 / 타일 (주말, 야간반)

무료취업알선, 구인구직자모집(062-369-1829)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견학 및 접수 가능!!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